

역사와 문화 속의 후지산

후지산은 일본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인 동시에 가장 숭배되는 산입니다. 높이 3,776m의 후지산은 아름다운 원뿔 모양의 모습으로 그 주변을 내려다보듯 우뚝 솟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에 태어난 후지산은 지질학적으로 아직 젊은 활화산입니다. 최근에는 864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가 그 지역의 지형을 바꿔 버리면서 후지 5호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을 키운 용암대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은 후지산의 파괴력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로도 여겼습니다. 유적을 연구한 결과 후지산은 조몬 시대(기원전 10,000년~300년)부터 숭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8세기에 편찬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와카(일본의 전통 정형시)집인 만요슈(萬葉集)에도 후지산을 칭송하는 와카가 실려 있습니다.

12세기에 이르러 후지산의 화산 활동이 잠잠해지자, 힘든 육체적 훈련이 깨달음의 길이라고 믿는 일본 특유의 신앙 형태 슈겐도(修驗道)의 수행자들에 의해 후지산은 수행의 장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7세기에 성립된 후지산을 숭배하는 민간 신앙 중 하나인 후지코의 선구였습니다. 수천 명의 후지코 순례자들은 매년 여름이면 후지산으로 몰려들어 여관, 정신적 지도자, 하역 노동자 등 후지산 기슭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했습니다. 지금도 후지산의 비탈길에서는 경을 외며 산을 오르는 후지코 순례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8)에 이르러 예술적인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후지산은 인기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 우타가와 히로시게 등의 우키요에 화가들은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본 후지산의 모습을 그려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들의 작품은 마침내 유럽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가쓰시카 호쿠사이가 그린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는 당시 일본의 예술 작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산 화집 ‘후가쿠 36경’에 수록된 판화 중 하나로 거센 파도 너머 저멀리 눈 덮인 후지산을 그린 명작입니다.

일본이 근대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행이 친숙해짐에 따라 후지산의 이름은 세계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태생의 해리 스튜어트 휘트워스는 1895년 이 지역에 ‘동양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붙이고 쇼지호 부근에 호수 너머로 후지산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서양식 호텔을 열었습니다. 1964년에는 후지산 고고메(5부 능선, 해발 2,305m)로 향하는 유료 도로와 버스 노선이 개통되면서 개인의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해발 3,776m의 후지산 정상까지 비교적 쉽게 등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

전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등산객이 모이는 산이 되었습니다.

2013년 유네스코는 후지산을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된 것은 후지산이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25개의 구성자산입니다. 유네스코의 인정을 계기로 후지산 기슭과 그 주변 지역의 매력이 재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여름이면 순례자들로 넘쳐났던 신사나 방문객들의 등산과 숙박을 돌보는 신관이었던 오시(御師)의 거주지를 둘러 보거나, 후지 5호에서 카누나 낚시를 즐기는 등 후지산을 바라보며 보내는 시간은 정상까지의 고단했던 여정과 함께 언제까지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